朝鮮日報

購讀料 一個月金壹圓 三個月先金貳圓九拾錢 六個月先金五圓七拾五錢(郵稅本社負擔)
廣告料 五號活字一行壹圓 四號九字一行 … 貳號七字一行 … 指定料五號每一行參拾錢
發行人 安在鴻 編輯人 白寬洙 印刷人 [illegible]
發行所 京城府 … 朝鮮日報社

論說 朝鮮時感

◇

京城帝國大學에는 近者講座를增設하고 敎授를增員하는데 講座擔任으로因하야 敎授에 二十名에갓가운敎授 助敎授에對한 辭令이發表되엿다 그러나法律 政治 文學 哲學 博物 醫學 等을合하야 全部가모다 日本人이오朝鮮人이라고는 차저볼수업섯다 朝鮮人에學者가업다는것이 참재격정이겟지만 알들하게日本人으로만식힌다는것도 생각하지아니할수업다 朝鮮人中에도學者될素質이充分한者잇고 하물며그들을嫌忌하는者면이라고는생각할수업다 將來를爲하여서 만히選拔하여쓰을생각을하는것이 彼等으로서는잇서야할方策일것이다 무엇이고모다日本人으로 다차지하지아니하면 등신이풀리지안는다고하는彼等의態度가 새로히생각되다 造船工學을배운者도 수조아서行政官吏 其他電氣 機械 建築 土木 及一般工農學을研究한者도 高普校의 敎育으로 빙빙돌게되니 吾人은 먼저朝鮮人의倫理的缺陷으로一大權威잇는 學者 技術家의産出이업는것을慨嘆하엿지만 時代의罪란것은 그것뿐로또눈살이쇠푸러진다

◇

平南의無煙炭은 鑛出激增으로 採掘을擴張코저準備中이라한다 近者朝鮮의當政者들이各地의炭田을 綿密히調査하야자못巨大한埋炭層을 到處에서發見한모양이지마는 殷北開慶에서도 鎭區四百萬噸에서치어 優良한無煙炭이 들어차잇는것을發見하얏는데 大阪의商事會社에서 그採掘을마럿고 大邱의有志들은 煉炭製造工場을 準備中이라한다 이有志도거의全部가 日本人인것은말할것도업다 豆滿江과西番浦사이에 三千間의運河를뚤코서 江上流에無盡藏으로들어선 木材를비롯하야北滿方面의物貨를 筏목으로또船舶으로 全部이運河를通하야西番浦에集中케하리라한다 昨年末부터 松尾小三郞이 이運河開穿의必要를主唱하야 五十萬圓의株式會社로서 右工事를企劃하기로하고 當局에 出願中이든바 認可되어곳着手하리라한다 무릇利權이잇는곳에모다先鞭을맛기고 오족뒤人긴에서발아보는 朝鮮人의資産家及識者들은 最後的으로 아모計劃이생기지안는가? 投機事業에넘어지는資産家는 오히려적지안케잇는形便이다

◇

朝鮮人은 소곰을만히쓰는人民이다 담배도잘먹는모양이지마는 소곰은必需品인만큼퍽만히먹는다。 그러나三面에바다를두고서도 山東鹽을每年三億斤以上을收入하지아니하면아니되는것은朝鮮의現狀이다 近者當政者는鹽田을擴張하야數年後에는四億斤의소곰을收하야 그의自作自給을實現하리라하거니와 鹽專賣에關하야 가끔議論되는바잇다 鹽專賣는 實現不可能의說이잇스니 길게말하지안커니와 財政上으로얼마큼效果가잇슬는지는 이미疑問으로삼는바이오 더욱히一般消費者에게 百般으로不便을끼칠념려는만타할것이다 煙 酒專賣에도 아즉만흔民衆 物議가일어나는朝鮮에잇서서는 擴事實은 이약이거리도아니될것이다

◇

朝鮮의鐵道는 總督府와滿鐵의사이를왓다갓다가하엿지마는 收益은 요새도相當하여서 昨年度에는 一千萬圓의收益이 잇섯다 「不景氣」라고 歲月이 업는이판에도 一千萬圓의돈벌이는 여간이아니다 이와同時에京城의電車도 每日平均四京五六百圓으로 쏫칠이다지난오는에도 野球와其他各種競技로因하야 每日增收二百圓乃至五百圓은無難하다한다 그러나龍山外지는一區域이지마는 淸凉里 麻浦는 연區域으로되어서 同地의住民은퍽不便이만흔事情이다

◇

京電會社에서는 그方面에收益이僅少함으로 一區域으로統一할수업다하든말을 吾人은記憶한다 그러나이만한收益이면 住民의便利를圖하야 都市의發展을圖하야 좀더誠意를보일必要가잇슬것이다 近者平壤에서 電氣를府營으로하엿고 釜山에서도그計劃이잇스며 先進한諸國의都市에도 그런한例가매우만타 例야잇든지업든지現實의事情에돌아보아 京城도電氣를府營으로하는것이必要할것이다 다만京城府의財政狀態가 近者困難하다하면 그는또고처생각해볼餘地가잇다

北京上空에도 青天白日旗飄揚不遠
三民主義를遵奉하라는 閻錫山氏提議에對하야 張作霖氏結局同意?

(上海七日發) 三民主義를 奉할것이라는 閻錫山氏의提議에 對하야張學良氏其他前線首領楊宇霆氏等奉天派幹部도모다 贊成하는바張作霖氏도結局은此에 同意할大勢임으로青天白日旗가北京上空에飄揚할日도 머지안흐리라더라

奉軍關外撤退提議
張、蔣妥協成立 張作霖도容許할貌樣

(北京七日發) 山西督軍閻錫山氏는張、蔣의妥協和平에對하야 居中調停을試할決心이라는바其方法으로
一、奉天軍은關外外지撤退할것
二、北京으로和議地點을定할것
等을提議中이바此로因하야安國軍最高軍事會議가開催되어討議된바其結果는嚴秘히附하얏다는데此際에閻氏의提議를容許하야奉軍은本來의目的에歸하야東三省을固守하자는論議가優勢한貌樣이라더라

馮氏北京攻略으로 共産黨擡頭?
眞相은아즉不明하다고

(上海七日發) 曩者에露西亞大使館을襲擊하고共産黨分子의大搜索을敢行하엿든바最近馮玉祥氏의北京攻略의必要上아즉同派의分子가侵入하엿다는消息은眞相不明이나馮氏의武漢政府移轉計劃을보드라도그러한事情이업슬것도아니라고말할수업다더라

米公使館 天津移轉說

(天津七日發) 北京으로부터의消息에依하면米國在中陸海軍首腦者는昨夜同國公使와協議한結果北京이危險하게되는境遇에는米國公使館을天津에移轉할것을華盛頓政府에報告하얏다더라

四十四時間飛行

(伯林六日發) 『쳄바렌』機는『헤이호라』에到着하기外지에道程은過日『린도바구』大尉의紐育、巴里間無着陸乘行三千六百哩의記錄을破하기를四百哩以上에達하엿다고非公式計算을한다또同飛行繼續時間은四十四時間三十五分이더라

列國對武漢政府
附加稅로因한 ◇經濟絶交眞相

(東京電) 武漢政府와列國間의經濟絶交한 眞相에對하야 某所電報에依하면 在漢口日、英、米、佛、獨白等의外國聯合商業會議所에對하야武漢政府는湖北의堤防修繕費名下에現行關稅에更히百分之一의附加稅를課할旨를通告해왓슴으로外國聯合商業會議所側에서는協議上如此한課稅에對하여서는承認할수가업다고拒絶하고一般非買決議를行코저各國의意嚮을徵한바議論이百出하야領事團會議는愼重한態度를取하기로하고武漢政府의反省을促하는同時에堤防計劃의內容其他의理由說明을要求한後態度를決하기로된것이라더라

三國軍縮에 伊國傍聽派遣

(東京電) 海軍省着電에依하면來二十日「쥬네바」에開催될日英、米三國軍縮會議에對하야伊太利는傍聽者를派하기로決定하고佛國은日、英、米三國에對하야國際聯盟佛國事務局長「쿠로델」氏를聯絡員의形式으로서會議에派遣하기로되엇더라

京仁京釜線 複線工事
一部施工決定

京釜、京義本線의複線改良工事는鐵網十二個年計劃編成當初考慮되엇스나改良費六千萬圓의巨額을要할것임으로十二個年計劃으로부터削除되엇는데그러나現在의運行狀態로見하야必要를認한釜山三浪津間三哩五分京仁線永登浦仁川間十八哩四分並京城龍山間의複線二哩는十二個年計劃中에經費百六十萬圓이計上되어今後二三年內로施工하기로되엇다더라

運送店合同
近日中具體化

全鮮的運送店의合同問題는向者運送業務改善委員長兒玉秀雄氏로부터內閣運送、國際運送兩社에對하야其同意를求한바잇섯는데通運定期總會에出席하엿든取締役吉田秀太郞은六日夜京城하야該問題에對한何等消息을傳하든一方으로兩社에서도合同에對하야서의通知가잇서兒玉氏와共히委員會並理事會를開하고一應協議한後一般運送業者大會를開하고其同意를求하야合同에對한具體的方法을樹立하려고近日中理事會를開할터이라더라

新幹會 咸平支會設總
各般事項決議

新幹會咸平支會에서는去六日午後四時半부터咸平靑年會館에서設立總會를金相烈氏開會宣言으로開催하고經過報告、點名을맛친後臨時執行部를選擧하고議長金斗鉉書記李鉉爾氏로選擧하고總務幹事의選擧가잇서各事項을討議하고同六時半에閉會하얏다더라(咸平)

◇決議事項
一、發會式擧行에關한件 總會의決議한바와如히來九日大大的으로擧行할것
一、會館建築에關한件(略)
一、豫算案編成에關한件(略)
一、支會規約에關한件(略)

◇總務幹事 庶務部金相烈 財政部牟盛祺 政治文化部宋琪浩 宣傳部李明準 調査研究部丁奎喆
◇常務幹事 庶務部李文秉 財政部李成祐 政治文化部牟鈸 宣傳部李仁行 調査研究部曹士鉉

高木敎員排斥코저 晉州農校生盟休
朝鮮民族을侮辱하고 學生들을恒常奴隸視 學父兄會對策講究

晉州公立農業學校第二學年生一同은去三日에結束하고同盟休學을斷行하엿다는데그理由는二年級擔任先生인高木佐太郞氏가朝鮮民族을侮辱하고性質이悖惡하여溫情味가업슬뿐아니라學生들을恒常奴隸視하는同時에學課를充分히敎授치못한다는理由이라는바同校에서는學父兄會를招集하고그對策을講究하는中이라더라(晉州)

間島中國人 鮮日視察團
間島出發入鮮

吉林省延吉道所屬의中國人官民으로組織된朝鮮及日本視察一行十二名은去月二十八日二番列車로龍井을出發하엿는데同一行은朝鮮各重要都市를觀覽하고日本外지단여가리라는바一行의現職及氏名은如左하다더라(間島)
▲汪淸縣知事孫象乾▲六道溝商埠局長高立垣▲延吉道尹公署第一科長兪政▲額穆商會長孫瑞峰▲茂森林業公司會計部長方永之▲東亞家實興兩紙… ▲延吉州話公司主任… ▲吉延尹公署外交… ▲敎化長敦州會… ▲和龍縣敎育會長… ▲…商會會長… ▲文會會長…

着着進行되는 間島民立中學校
各部署選定과重要案決議

일즉이本報에屢次報道한間島一帶의有爲한人士들을網羅하여白衣民族의敎育은白衣人의손으로하야가자는熱誠과赤心으로뭇잇는人士들의周到한努力下에서延和汪三縣聯合民立中學期成會는그동안事業의階段이着着進行하게되엇슴으로同會에서는去月二十八日午後二時부터第二回執行委員會를局子街靑年會館內에서崔東順君의司會로開會하엿는데出席人員二十六人으로諸般事項을圓滿無缺히決議하엿는데決議事項及任員諸氏의氏名은如左하다더라(間島)
◇決議事項
一、規則에對한件
二、執行委員會로부터規則檢討委員을選擧하야通過하기로함
二、校長問題에對한件 校長은常務委員長으로選定하되選擧는民立中學確立後로하기로함
三、監察委員會設置에對한件 監察委員選擧는大會에서選擧하기로함
四、校舍增築에對한件
五、規則檢討委員及常務委員選定에對한件 至速히增築하기로함
六、地方部組織에對한件
七、組織區域에對한件
八、巡訪區域分擔에對한件
九、交涉에對한件

學父兄會對策講究

全南靑山島에 臨時通信機關
漁盛期一個月間에

全南莞島沖에잇는靑山島는鯖鯖等의漁業地로서著名하야每年六七月頃의盛漁期에는朝鮮內는勿論이요日本長崎香川의漁業家外지來到하야每日百餘隻以上의發動船이非常한殷盛을일움으로遞信局에서는今般盛漁約一個月間에臨時電信機關을施設키로하엿다더라(莞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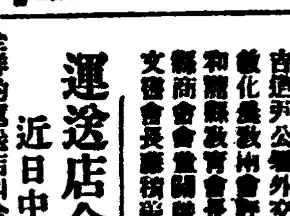
蔚山方漁津間 鐵道敷設
促進期成會서 請願

蔚山方漁津間鐵道敷設促進期成會同盟會長外關係者一同은方漁津에鐵道를敷設하여달라는請願을鐵道局에提出하엿다는데右는旣設한慶東線의蔚山附近에서分岐하야方漁津에至하는九哩의鐵道로鐵道十二年計劃의東海線의分岐線으로서敷設하여달라는것으로鐵道局에서는目下審議中이더라

十、規則通過에對한件
十一、委員辭免에對한件
◇常務委員 黃一甫 金建一 崔文鎬 韓戰
◇臨時執行委員 張壽徹 李文弘 崔文鎬
◇規則檢討委員 陳致業 李文弘 崔東順

學術巡講團 晉州서도盛況

現代評論社主催와本社後援인南朝鮮巡回講演團一行은去三日午後에晉州에到着하야翌四日午後八時半부터晉州座에서朴英熙氏의司會下에開會하엿는데警察當局의注意가嚴重하야演題에多少拘束을바드면서團體生活과統計의必要한題下에李寬求氏가登壇하야統計의必要를力說한後因果法則이란題下에洪起文氏가登壇하야現代資本主義가人類生活의根本惡罪이란것을痛論한後李淸源氏는演題를變更하여歐米印象記로써長時間世界大戰의經濟的原因과勞農露國의現狀을들어聽衆에게만흔感銘을주고拍手歡呼로同十一時에閉會한後有志主催로京城館에서實會를排設하고彼此趣味津津한中에서午前一時에散會하엿더라(晉州)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葛山溫泉諸君에게

◇溫泉은天然的藥水로病者에게업지못할治療所이며 더욱우리無產者에게는다시업는生命水이라할수잇다 實例를擧하면葛山溫泉만하여도每年모여오는病客이三四千名에達하는바大槪는重病者로서病院治療를밧지못할無産階級의人間이모여와서治療를바다完治되어가는것은諸君이아는바事實이라고하겟다

◇이와가티所重한溫泉을支持하는諸君으로湯室과浴室을不潔히한다 藥水源泉을腐하게하야毒菌이生하고 惡臭가觸鼻하니어지身病을治療하는湯室이라할수잇스며 溫泉을支持하야天然的藥水를管理하는主任等이라할수잇는가? 諸君은다만浴室이야如何튼가病客이야엇지되든가 飮食만多賣하면第一江山이다하는營欲者이라할수잇다

◇諸君아! 葛山十二戶에서무엇으로生活을하는가飮食營業이아니면糊口를못할君等으로浴室과藥水를그러케不潔히하고將來는무엇으로客을對하려는가? 浴室內에서汚穢物이썩어내음새가두려무러나고下湯에서는毒菌과惡虫이生하야肉體에外지犯接케하여一般浴客의非難을듯으니諸君으로하여금長久히溫泉을支持하야나가지못하리라고筆者는斷言하는同時에아는데外지忠告하는바이니 諸君은將來外지諸君의生活을維持하라

◇元來溫泉으로論하면四百餘年前李朝世宗大王께옵서發見한곳이라하야 그이름이놉흘뿐만아니라古蹟이만흐며景槪가絶勝하고藥水가神效하야名勝溫泉이라하는바將來로發展할希望이不少하다 數年前부터 日人이雜誘하려고某所에다交涉한者가一二名이아니엇다하나所有者가金剛山權某寺中에서承認을하지안홧슴으로아즉外지日本人의手中에들지를아니하엿스나 萬一에그가티不潔하고 藥한것을官廳에서본다하면諸君으로하여금 永久히그가티하라고하지안흘것은 勿論이고將來로發展을하지안는다하면 그도또한問題가되어衛生의關係로 君等이溫泉管理를못할것이다

◇諸君아! 筆者는다시一言으로忠告하고자하는것은隣近同聚者間疾病을살고互相扶助하야和睦하는同時에하로밧비浴室을淸潔히하고一般客에게非難을듯지안토록親切히하야同情을어든後에모든것을發展식히고不完全한것을修繕하여노흐면病客에게便利할뿐아니라他人의魔手도侵犯을못할것이다(元山金載波)

釜山對大邱 庭球戰
大邱軍이惜敗

昨秋에開戰된釜山對大邱의二大都市對抗庭球戰은今年으로延期되엇섯는데去五日午前十時부터釜山地方法院코-트에서開催되엇는바釜山軍은兩年間을通하야連敗하엿슴으로今年은復讐戰이라猛烈한練習을한後意氣잇는雪辱의意를藏하엿으며大邱軍은大邱의熱狂的聲援으로緊張되엇스며釜山軍에는前京城法專大將前衛沈潤重君이出戰하야敵의妙技의『스마싱』은滿場의人氣를集中식혀스며緊張된戰勢는莫上莫下로活氣充滿하야對戰한結果全大邱軍이惜敗하야數年만에釜山에서雪辱하얏다는바午後五時에閉會하엿스며戰績은如左하다더라(釜山)

	全大邱		全釜山	
○	盧藤細	四—一	渭川 水島	×
×	崔昌燮 朴衛東	二—四	裵宮守 許三倫	○
×	權[illegible]	一—四	安圑 大東	○
○	神谷 矢田	四—○	朴 韓	×
×	藏田 金奉永	二—四	尾寄 石原	○
×	木村 藤村	二—四	朴正烈 趙衡潤	○
×	川崎 吉田		姜熙 沈潤重	○
○	盧藤細	四—一	裵 許	×
○	神谷矢田	五—三	安田大東	×
×	盧藤細	二—四	尾崎石原	○
○	神谷矢田	四—一	朴趙	×
○	神谷矢田	四—二	沈姜	×
×	神谷矢田	一—四	尾崎石原	○

中鮮庭球會
京師軍이優勝

忠南溫陽溫泉庭球倶樂部에서는本報牙山支局後援下에第三回中鮮軟式庭球大會를開催한다함은旣報와如하거니와지난五日午前十時부터溫陽溫泉新『코-트』에서開催하엿는데各組의妙策과快技는만흔群衆의喝采를바덧스며京師軍과天安軍이決勝을始作하야一勝一敗의伯仲의勢는果然最後의勝冠을누가 두엇는데天安軍의技術도조치마는京師軍의快技와妙術에慘敗를當하고優勝의月桂冠은京師軍에게로갓는데이어서優勝旗와賞品을授與하고同五時半에閉會하엿다더라(牙山)

公州靑年臨總
綱領發表와委員選擧

忠南公州靑年會에서는去一日에開催되엇든本會委員會에서豫定한來十二日臨時總會는本會務에對하야緊急히討議할必要가잇슴으로總會日字를去四日로變更하고當日午後九時에本會館에서會員三十一人이集會하야辛慶淳氏의司會下에臨時總會를開하고臨時議長羅時榮을選擧한後前會錄朗讀과經過報告가잇섯스며任아서新規約綱領을通過한後委員改選이잇섯스며 討議事項에對하야는時間上關係로權利及執行을本會委員會에保留하고翌日午前零時三十分頃에閉會하엿다는데綱領及被選委員은如左하다더라(公州)
◇綱領
一、우리는民衆本位인合理的新社會建設의役軍이될만한訓練과敎養에努力함
一、우리는朝鮮民衆의政治的經濟的覺醒을促進함
一、우리는團結을鞏固히하며一切派閥主義를根本的으로排除함을期함
◇委員=尹貴榮 裵相仁 金英培 徐謙淳 辛慶淳 閔泳龍 羅時榮 尹洪重 金鍾哲 尹相甲

和順靑聯 社會講座
綾州에서盛況

全南和順靑年聯盟에서는自體修養의第一步로社會問題學術講座를巡廻開催한다함은旣報한바이니와지난五日綾州甲子靑年會에서開催한全南庭球大會를利用하야第一着으로綾州에서講座를開하엿는데綾州의새소리들을울리매社會科學의智識에주린靑年들은終日大會場의疲勞함도不顧하고압흘다투어雲集하야新藥講堂에滿員을이루엇다 定刻인午後九時가되매君의意味深長한開會辭가잇슨後『唯物史觀』이란問題로朱在鶴君이登壇하야長時間『맑쓰』의辨證法的說明을하고『프로레타리아經濟學』이란問題로趙鎔勳君이登壇하야少數『부르조아』를標準한經濟學을解剖說明하는同時에無産者經濟學에入하야論할지음에臨場한警官으로부터注意를當하고同十一時半頃에閉會하엿다더라(綾州)

長城老人親睦創立

全南長城郡에는時代에順應하야農民各種運動이逐日發展하는現狀이나四十歲以上의老人들은別로히集合할만한團體가업서遺感이든바去端午佳節을利用하야四十歲以上으로親睦會를組織하고從後로會員中餘年이얼마남지안코死亡할時에는必히全會員이前備로喪擧前에『長城郡聖壽山親睦衰悼旗』를擁圍하야葬地에外지行列하야親睦의意를表하기로…

洙陽靑年臨總
◇任員總改選

慶南泗川洙陽靑年會에서는去三日午前十時부터本靑年會館에서第一回臨時總會를開催하엿는바李允祚君의意味深長한開會辭가잇슨後睦興洙君의簡單한經過報告가잇고順序에依하야進行하든中任員의無誠意에關하야前委員十一人을全部勸告辭任하기로滿場一致可決하고連하야委員을選定한後午後四時에閉會하엿다더라(泗川)
◇改選委員 委員長睦興洙 常務林順伯 庶務姜奉顯 中央委員姜秉生 李允祚 李調辰

奉天在留同胞의 大運動會盛況
卅七種의競技를無事終了

異域風土에서孤寂한生活을하는奉天在留同胞는一年一次로한고데모혀自慰的消暢을하는年例의大運動會는旣報와가티相扶會靑年會主催와東亞、中外、滿鮮及本報支局後援으로去三四兩日間을繼續하야西塔陸軍鍊兵場넘는벌판에서開催하엿는데中央에는놉히달린『奉天朝鮮人大運動會』라고쓴큰旗幅은바람에날리고거리며電幕처럼둘러잇는데左右에달아노흔勝旗처럼風采좃케天空에너풀거리고잇섯다 當日午前九時부터兒童의旗取競走로비롯하야『마라손』外지三十八種을興味잇게順序대로進行하엿는데아츰부터雲集한群衆은其數를헤아리지못할만큼되엇스며奉天普通學校外地方에서온學校生徒들이人山人海를일우엇스며奉天學校와信興學校와英守學校와光東學校에서學生全部를引率하고왓스며來賓으로는中國人과日本人도만히보엿는데一般이매우興味잇게생각하는것은年來로端午日에는單純하게脚戲만하든것을今年에는各種競技를하게되엿스며外에快活하고滋味스럽게역된『마라손』競走는約十里되는新市街周圍를一週하는데卅一分間에第一着으로張承浩君이되고第二着에金錫弘第三着에黃金山君이엇스며第二日도午前九時半부터三着外지繼續되엇는데各處에서모혀든一流選手의決勝戰은實로壯快하고趣味가津津하얏스며더욱이勇猛스러운力士의씨름에는一般觀覽客에게快感을주엇섯다 當日一等賞으로소(牛)를타간選手는撫順서온力士張德賢君이고二等賞을탄選手는奉天郵便局電信課에勤務하는李在乙君이엇다더라(奉天)

論山勞夜復活
兩氏熱誠으로

論山勞働夜學은五個星霜이란長久한歷史를가진無産兒童의唯一한敎育機關이든바不幸히經濟困難과敎師의問題로不得已休校의悲運에싸지엇든바院主趙㬢鎬氏와李在春氏의不斷努力으로來二十日부터다시開學하리라는데地方人士는兩氏의無産兒童敎育事業에對한稱頌이藉藉하다더라(論山)

廣川靑年定總

忠南廣川靑年會第一回總會는旣報와如히去月三十日午後一時두러同里美監理校堂內에서朴源楠氏司會下에開하고會員點名과經過報告가잇슨後同四時에閉會하얏는데被選委員과討議事項은左와如하다 任員選擧와其他決議

始興의品評會

去六日午前八時에始興郡西二面事務所內에서永登浦面、北面、東面、西面、新東面、五個面의主催로繩叺增産競進會、水稻多收穫品評會、堆肥品評會等各種品評會를開催하얏는데始興郡守神尾氏訓示와京畿道産業技手酒井氏農業技手李龍九氏審査下에各種出品者에對하야一二三四等을選拔하야賞品授與式을擧行하고同午前十二時에閉會하얏는데受賞者氏名은左와如하더라
一、堆肥品評會一等東面李廷漢秀岩面李戴侃、君子面鄭龍錫二等東面孫敬祚外十一人四等東面李樺宰外十三人
一、水稻多收穫品評會一等東面朴仁榮、二等南面梁在徹、西面姜理根、三等西面金奎煥、外二人四等新東面李震九、果川面李星煥外三人
一、稗拔競進會는里別로優良里는北面番大里、東面加里峰里、西面所下里、新東面方背里、果川面銘峴里、西二面虛溪里、秀岩面甘里、君子面新吉里等

榮江靑年委員會

去五日午後八時榮山浦榮江靑年會에서는革新總會를마친後繼續하야委員會를開催하고左記事項을決議하엿다고(榮山浦)
◇決議=年齡超過兒童의夜學開催의件 運動獎勵及庭球大會開催의件 『모히』患者撲滅及露天飮食店의衛生設備指導에關한件

山浦靑年會定總

麗州郡山浦靑年會에서는去一日午後二時에定期總會를開催하고會長尹榮周氏司會下에左記事項을決議하엿다고(南平)
◇決議=經過報告 會員整理의件 任員改選의件 會館買收의件

高興廉洞에 郵便所新設

全羅南道高興郡廉洞은漁業地이고又對岸小鹿島에는慈惠醫院이잇는等各地임으로今般遞信局에서는同地에郵便所를設置하고來十六日부터業務를開始할豫定으로準備中이라더라(高興)

榮江靑年革總
◇五條項決議

全南榮山浦榮江靑年會는創設한지五六個星霜에波瀾이重疊하야一時睡眠狀態에在하든바去五日當地南鮮棉業社樓上에서革新總會를開하고左記事項을決議한後金正洙金元培兩氏의感想談이有한後散會하엿다더라(榮山浦)
◇決議事項
一、會員整理의件
一、新會員加入의件
一、任員選定의件
一、本會事務所指定의件
一、一切事業計劃의件
◇委員=庶務部金元培▲文藝部趙炯澤▲體育部李在淳▲經理部李相給▲運動部申彥海▲書記曹珙煥

永川에補習 農業校設置
去一日에開學

慶北永川은一般農事에適當한地帶이나其生産品質은良好하지못하야當郡에서는恒常指導改良에汲汲하여오든바特히斯界에技術家養成을必要로늣기고公立補習農業學校를創設케되어지난一日부터開校하엿다는데一般人士의期待는매우만타더라

如何하더라(廣川)
◇任員=朴源楠金宗吉趙大寧兪泰植洪敎均崔錫鉉金道植
◇討議=本會革新에關한件 新入會員受理의件 會館에關한件

春川庭球會
一等은師範에

春川倶樂部主催의春川庭球大會는豫定과가티지난五日午前十時부터春川公立普通學校庭에서開催하엿는데參加組가三十에達한盛況裡에第一回戰이開幕되엇는바當日은日曜日인關係로多數한觀衆이四圍에陸續하며大會旗가翩翩한選手들의최後를다하는新技가始作되어方漢한綠陰에白線을드나들며팡팡써리는볼은拍手를끈으리만큼熱烈하엿는데第五回戰外지못을마치고準決勝으로부터決勝에옴기어알에와가튼結果로써西岳에걸니우니엇덧야금親睦을披困하게하는가운데第五回戰外지못을마치고 … 午後六時頃에圓滿히閉會하엿는데今回試合에는平素에當勝組이든李春得組가高普生인金元奎洪鍾濂組와얼니어最後外지奮戰하엿스나畢竟慘敗를免치못한近來의드문記錄을내엇스며當日午後第五回戰부터는소낙비로因하야多少充分한技術을發揮치못하고意外惜敗한組가잇는遺憾이不無하얏다더라(春川)
▲一等 吉滿 李成(師範)
▲二等 佐瀨 櫃田(普校)
▲三等 崔榮 金泰(高普)
堀田 舘野(銀行)
◇役員=會長崔錫褒 副會長尹榮周 總務金京容 幹事金九

振威郡의 少年庭球會
安城軍이優勝

京畿道振威北面靑年團主催와京城日報烏山支局後援으로第一回少年庭球大會를開催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豫定과如히지난五日午前十一時부터振威公立普通學校코-트에서開催된바安城烏山水原振威西井里等三十組란大盛況으로開幕되엇는데定刻前부터雲集한觀衆은無慮五百餘名에達하여人山人海를일우어會長鄭錫寶氏司會下에簡單한開會辭가잇고六十名選手의入場式을마친後審判長西村氏로부터大會規定과注意事項을通過한後競技를始作하야서로자우는光景은참으로볼만하엿스며더욱히各團體의應援으로最後決勝戰은安城團과振興團과接戰되어그翌日外지누盛況裡에圓滿히終幕하엿다는데最後勝利는安城李成龍韓相萬組에돌아갓다더라(烏山)

黃州脚戲會
盛況裡에終幕

綠陰芳草勝花時의매암이노래하는端陽佳節을理用하야本報黃州支局後援下에全鮮脚戲大會를開催한다함은旣報하엿거니와豫定인지난四日부터始作하야東西南北各地에서모혀드는百數十餘名의選手들을비롯하야數萬의觀衆으로人山人海를일운空前의大盛況裡에서六日外지龍飛虎躍의勢로各自의技能과勇猛의勝利를다투어趣味津津한盛況으로圓滿히大會를맛치엇는데今番大會에서勝利의月桂冠을어든選手의氏名은如左하다더라(黃州)
▲一等龍里金東觀▲二等碧城里盧泳甫▲三等赤壁里金泰俊

讀者娛樂係
牧島分局新設

本報釜山牧島分局에서는一般讀者들의安하고거리讀者娛樂係를新設하고每月一回式興味津津한娛樂的問題를發表하야正解讀者에게授賞을하리라는바讀者는每月二十五日外지葉書로解答하기를바란다하며正解者가所定數를超過할時는警察官立會下에抽籤을行하리라는바今月懸賞問題는如左하다더라(牧島)
◇上題(正解者는本報一個月分進呈)
一、沐楡이六千二百四十一個

地方漫筆
礪山市場問題
礪里支局 一記者

現礪山市場은距今三百餘年前에礪山面酒幕里에創設된것이다 그리하야爾來去來가日益旺盛한바毎年夏節이면水害로被害가不少하다는口實로今年四月一日부터礪山面에서는他處에礪山市場을移轉하야場內設備等을改善하려고礪山面民一同은猛烈한反對로郡當局者도近百名의死活問題인만치考慮함이잇섯든지礪山市場繁榮會에서는지난三月中에臨時總會를開催하고移轉을絶對로反對한다는決議를하엿든바郡當局者도近百名의死活問題인만치考慮함이잇섯든지礪山繁榮會의希望과갓치移轉치안코現市場을擴張한다고言明하엿다는데 玆에賤利慾日人等은今般擴張에自己네商店近處인礪山川北便에礪山市場을다시移轉하려고暗暗裡에서該土地買收를豫約하는等運動이자못猛烈함으로礪山面民一同은玆에憤慨하야礪山市場을移轉하라면現市場外지의空地에移轉하여달라고陳情書를益山郡守에게提出하엿다는데若移轉치못한다하면現場所에存置하여주기를懇望하는것을附帶로希望하엿다 此市場問題와가튼利害關係가面民一同에게影響이잇슴에도不拘하고礪山面長은主見이업시日人압잡이만된다고一般面民은大不平이라고 이압흐로이問題는엇지나展開될는지注目할바이다 第三者의立地로觀察할진대現市場이水害로被害가莫甚하야移轉한다면移轉處인礪山川北便에移轉하려는心思를알수업다 그러나移轉處이라는곳도水害地인礪山川의堤防이조곰이라도無하면한층더위태한것이라고 … 可憐타礪山面民은非難이낫는것도忠告의心思는잇는것인데朝鮮人의利益만은念頭에도두지안코日人의觀察이라는것은모다거짓이업스면將來를理한에恒常主見이업스며日人만위하는者도잇다 面長은몸을닥가君이여三思하라

地方人事

▲金振玫氏(坡州郡守)新任人事次로本社汶山支局來訪(坡州)
▲韓貞河氏(本社員)八日夜全羅忠淸方面에出張

橫城元鍾禹氏特志

江原道橫城郡公根面三培里區長元鍾秀氏는家勢도넉넉지못한데今般一期戶稅에自己洞里極貧同胞三十餘戶의戶稅十餘圓을代納하엿슴으로一般人士는元區長의稱頌이藉藉하다고(橫城)

社告

本社平澤支局長金永旺氏는事情에依하야辭任하고金敬氏를新任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朝鮮日報社 白

本支局에서左와如히總務를任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總務 崔鳳文
朝鮮日報豐基支局 白

本支局에서春陽分局長金吉淳氏와記者尹澤氏는事情에依하야辭任하고左와如히分局長及分局位置를變更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一分局位置 奉化郡春陽面宜陽里
一分局名稱 春陽分局
一分局員職氏名 分局長 權寧岱
朝鮮日報豐基支局 白

平壤女性問題講演會 警官이無理解散

별로불온한것도업는데 一般聽衆極度興奮

평양녀성동맹(平壤女性同盟)에서는 예뎡과가티 경성으로부터 연사를 초청하야 지난륙일오후 구시 평양텬도교당에서 녀성문뎨대강연회를 개최하엿는데 먼저 백덕수(白德秀)녀사의 개회사가잇슨후「녀자의설움」이란연뎨로뎡칠성녀사(丁七星女史)의 연설이잇섯고 그것이끗난후조선부인운동의과거현재장래(朝鮮婦人運動의過去現在將來)란연뎨로정종명녀사(鄭鍾鳴女史)가 열변을토하야천여명청중을광케하든중별로불온한말도업슴에 불구하고 림장하얏든경관 김관보(金觀甫)는「이것이 강연인가?」하고 고함을치며즉시해산을명하자 천여명청중은 크게흥분되어 고함을치며「무슨리유로해산을시키느냐」하며 함성이일어나 장내는크게 험악히되엇는데 사회자로부터 여러번 해산하기를 텽중에게 말하얏스나 텽중은듯지안코 한시간가량 떠들다가결국권리가업는해산들이라 한울을 풀고 엄한시경에 십수명정사복경관경계리에해산되엇다더라

預金返還訴訟

평양부 륙로리(陸路里)변호사 리동초씨는 평양부(平壤府)회계계(會計係)에잇는궁본(宮本)씨를걸어예금반환(預金返還)소송을 지난륙일상오열시경에 평양디방법원에 데긔하야 개정되엇는바 그소장내용을 알어본즉 권긔궁본이라는 자는 지난일월 십일쥐녀에 자긔개인명의로 일금삼천원을 부내남문뎡 로진용(盧鎭容)에게 비료대금(肥料代金)으로 마른 사실이 잇섯든바 권긔로진용은 임치증을리동초 변호사에게 양도하엿더니 궁본씨는이금액을 돌려줄수업다고함으로권긔와가티소송을데출하엿는바 다음긔일은 오는칠월일일이라더라(평양)

北海道에大火 三百戶一村全滅

불이나자맹렬한바람으로 被害는目下調查中

지난칠일오전일곱시삼십분경북해도 북견국문별군흥부디내중앙부민가(北海道北見國文別郡興部地內中央部民家)로부터불이일어낫는데 그때마츰맹렬한바람이부는풍세로인하야불길은바야흐로 흐터저 청년단(靑年團)소방대(消防隊)등의필사뎍 활동도효과가업시 삽시간에 삼백여호를 태운후 동여덟시경에진화되엇다는바 동뎡은 전멸상태가되어 목하당국에서는 리재민(罹災民)구조에노력중이라더라

父不愛子하고 弟不敬兄의悖倫

전남광양군광양면칠성리(全南光陽郡光陽面七星里)리채의(李釆儀)란사람의집에는 지난오월십사일 오후팔시부터 김흔밤새로두시까지 선혈을 흘려가며삼부자가싸워결국장자가중상을당하야 사경에이르럿다는데 그사실을 탐문한즉 리채의는본시성질이 완악하고 간사하야십년전부터 장자리몽(利夢)을 축출하야 부르게먹고사는바리몽은부모에게 축출당하야 처자를다리고 죽륙일하나 생활은 더욱날로 곤난하여 집으로증인배를복동켜쥐고 자긔아버지를 차저가서그 사실을말하고 량식을 달라한즉 그의부친은 도모지듯지안코 오히려 무중만하기로 리몽은어이업서 밤에실수가 잇섯다는데 그의부친은 옷을벗고 달려와서 함부로 따리는중 설상가상으로 차자리형(利亨)이 가아비와협력하야 형을 무수란타하엿다는데 이런비인도적 행동을 하엿다는 소문을들은 칠성리 진흥회에서는긴급위원회를열고부자를불러 여러말로설유하야보냇다더라(광양)

牧島海峽渦牛劇 지난삼일오후네시경에 부산부목도(釜山府牧島)의미아리련락선(聯絡船)이 영선뎡 잔교(瀛仙町棧橋)를떠나서 목도해협의 약반가령지나갈때 갑판우에섯든 소(牛)한필이 배가 흔들림을따라 바다물로 뛰어젓다는데 이것을본 연안의발동선(發動船)사오척이 곳 소를둘러싸고 해변쪽으로몰앗던바 소는줄기차게 헤엄을처서 한륙십간가량의거리를 요행히살어나왓다는바 일시는해안 일대에 구경군이답지하야 한희극을일우어 우숨판으로 화하얏섯는데 이로인하야 련락선은약간연착되얏섯다고(목도)

술한잔에칼부림 現場은鮮血淋漓

술사달래서거절햇다고 칼로찔러중상을당하게 平壤新倉里의活劇

지난륙일 오전열한시반경에 평양부신창리(平壤府新倉里)시장(市場)에서는 주정군들이 술한잔으로 말미암아 격투로써서로가졋든칼로찔러 현장은 선혈이림리한 일대수라장을 일우엇는데 그원인을탐지한즉 평양부염뎜리(鹽店里)륙십륙번디에거주하는윤달봉(尹達鳳)은신창리시장 장소에서 가티류숙하고잇는 최제경(崔濟敬)과권긔 최제경에게 술을사먹으려왓다가는 길에 권긔 윤달봉이 최제경에게술한잔사달라고 하엿든바 이를거절함으로 최제경의배를찔러 중상하엿는데 피해자는즉시 부내자혜의원에 입원하야 응급치료를 한결과 생명에는관계가 업스리라더라(평양)

◇筏橋警察拷問事件 巡查謝過로遂解決◇

긔보지난달십구일에 벌교(筏橋)경찰관주재소에서 자유로동회(自由勞働會)간부 김태영(金泰永)씨들 절도피의자라하야사실을심문할때에 고문한사건이잇서 피해자측에서는 그사건의관계자들을걸어고소를데긔하려고 하야일체수속을준비하얏는바사건관계자들의 가긍한정상을 생각하고 유서하얏다하며 그사건 발생당시로부터 각단톄에서도 그대책을강구하든중지난오월이십륙일에그사건관계자인좌등필송(佐藤筆松)과박일모(朴一模) 두순사가각단톄대표자와유지인사들을청하야공중의압헤서불켜이 사과하얏슴으로원만해결이되엇다고

迷信?墓鬼?

선조의묘를가만이파고 ◇……白樺皮를煮食

함남홍원군 동면(咸南洪原郡東面)김형건(金亨健)이란 자는 지난오월 미신(迷信)을밋는관계로 선조(先祖)의 무덤(墓)을 발굴하야사톄(死體)를쌋던 백화(白樺)의썩질을벗기어 다려먹는것을 홍원경찰서원(洪原警察署員)이 탐지하고인치엄중취됴중이라더라

平壤大火

손해팔천원

지난륙일 하오다섯시 오십분경에 평양부본뎡(平壤府本町)조선음료주식회사(朝鮮飮料株式會社)데일창고(倉庫)안에서 불이일어나 마츰맹렬히 부는바람을딸아 권긔창고한채가 전소되고 공장(工場)한채는 반소되엇는바 손해는 약팔천원에 달하리라하며 원인은방금됴사중 이라더라(평양)

軌道비고 낫잠자다重傷

숭인면에서

고양군숭인면석곳리(高陽郡崇仁面石串里)이백십칠번디뎐춘근(田春根)은륙일정오경에 석곳리텰도 궤도를비고 낫잠을자든중 십이시삼십분에청량리(淸凉里)로출발한렬차가 달아오는 바람에잠을깨어 일어낫스나 렬차의속력에넘어져머리에일주일 동안치료할중상을당하얏다 더라

쌀래차저가오

일흔사람은 ◇本町署로오시요

원적을 평양부 (平壤府)에두고 현주가 일정치못한 곽덕순(郭德淳)이란로인은 작년십월이래 동막(東幕)마포(麻布)삼청동(三淸洞)부근 빨래터로 돌아다니며 널어논 의복류(衣服類)를 비롯하야 시내각상뎜으로 돌아다니며 만흔물건을 절취매각 소비한것을시내본뎡서 (本町署)원이 탐지하고 인치취됴중이라는바 누구던지『빨래』를 일허버린 사람이잇거든 본뎡서(本町署) 형사실로 가서 물어보는것이 조켓다고

寡婦가不義兒를 壓殺後에暗葬

경찰에데포되어목하취됴중 犯人은死產이라辯明

평북강계군 전천면창덕동(平北江界郡前川面昌德洞)뎐모 (田某)의집에서는 젊은과부가아이를나허 죽여가지고 암장(暗葬)한사건이 발생하엿다는데 그사실의뎐말을 탐문한바에 의하면 뎐모의처김성녀(金姓女)가 지금으로부터 칠년전에 그남편이죽고 유복의자식하나를 크게 밋고 일생을 마치려고구든결심을다리고 시집에서 가존고초를 달게바더오든터이나 우연히 그동리리모란청년과 남몰래정을통하야 결국잉태를 하게되어배는 나날이 불러옴으로 김성녀는 걱정을하야오다가 지난오월칠일 저녁에 아이를나케되엇는데 해산한 즉시로세상이알까 두려워하야 그아이를압살하야암장 한것인바 오륙일전에 경찰에 데포되어방금엄중한 취됴중이라는데김성녀는본시죽은아이를 나흔것이라고 변명한다더라

泰和女子館 慈母會開催

시내태화녀자관(泰和女子館)에서는 사회부(社會部)주최로 륙월팔일(水曜)오후두시부터동회관집회실(集會室)에서 자모회(慈母會)를 개최할터이라는바 당일에는 특히 리규완(李圭完)씨를청하야 강연(講演)을 듯는외 자미잇는 여흥도잇슬터이라더라

◇본사견학한 녀자대성학원생도

觀衆은더욱輻湊 競技는더욱勇敢

사람바다에룡이날으는듯 각선수의기능은신묘불측 仁川自轉車競技第二日

이미보도한바인천자전거선수회(仁川自轉車選手會)주최전조선남녀자전거경기대회(全朝鮮男女自轉車競技大會)를개최한지 제이일인 지난륙일은 최후결승을 다투는날임으로 제일일보다도더욱성황을 일우어 아츰부터물밀듯 대회장에 들어오는관중은 실로 립추할여디가업시경점으로 인정울치는가운데 오전아홉시부터 경기를 계속하엿는데 우승긔를 다투는 용감한활동과 각선수들의 긔민한 수단은관중의 이목을놀라게한다 제이십오회부터 시작한후 오십오회까지마치고 제오십륙회만에 결승전(決勝戰)에들어가니 때는오후여섯시경이더라

最後優勝은 조수만군에게

최후결승전에 들어가서는 제일착으로사류(四流)선수의경기가 시작되어 십오주(十五週)를돌앗는데 제일착(第一着)은 경성 윤병희(京城尹炳禧)군, 제이착(第二着)은경성김석근 (京城金石根)군, 제삼착(第三着)은경성리홍긔(京城李弘基)군이엇스며 그다음에는녀류(女流)선수의경기가 시작되엇는데 예선전에는 인천의량채화(梁彩花)가번번이 일착을 하엿슴으로 물론결승전에도 동녀선수가 월계관 (月桂冠)을어드리라고일반은미덧든바이나당디에서는광월단(光月團)리옥화(李玉花)가일착을하야일반을놀라게하고 량채화는이착이되엇스며경성의화중선(花中仙)이가삼착을하엿스며그다음은 전영희(全映熙)리희백(李熙伯)신광춘(申光春)등군인데동대회회장김수복(金壽福)씨의식사로 성대한우승긔 수여식이잇슨후 동여섯시경에 산회하엿더라

리고그다음에는유년(幼年)선수들의아차로웁고사랑스러운경기가시작되자관중의박수하는소리는산이문허지는듯바다가끌는듯한 인긔집중리에서 결국명예스러운 우승긔는 칠세아동인경성림춘식(林春植)에게돌아가고 말엇스며 이착은인천의원등(遠藤)(十一歲)삼착은 죽중(竹中)(十歲)이엇섯다 그리든후에는 제삼류의 선수의경기를 계속하엿는데 삼류는 경성삼천(森川)(一着) 경성김동규(金東奎)(二着) 허금득(許今得)(三着)이류는 경성류상룡(劉相龍)(一) 김동규(金東奎)(二)중국인장의춘(中國人張義春)(三)이엇스며 제일류결승전에 들어가서는 당초에는오십주회를 돌기로 하엿스나 시간의관계 경찰의제지로 유감이나마 이십오주로작정되어 경기를시작한바 경성조수만(京城趙壽萬)군은 과연 전조선의 선수인만큼 기능이능란하야 다려나는범도 날어가지못할만큼 어느듯이십오주회를 돌아 최후의우승긔를 덩덩하게 차지하엿더라

懸河가튼雄辯에 滿場聽衆心醉

경관의중지소리가연발중 그러나연사의론법은유쾌 本報江景支局一週紀念

본보강경지국에서 지난사일 단오가절에 경영일주년 긔념으로 전강경청년남녀 웅변대회를 개최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독자제씨의 열렬한후원과 디방청년의 준비를 가추어가지고 당일오후구시반부터 당디황금뎡 미감리교회당에서 웅변대회는 열리엇는데 몰려드는 텽중들로 장내외에 송곳하나 꼿을틈 업시 립추의여디가업도록 되엇고 우박가튼 박수만 쏘다지는속에 정사복경관들은 한편자리에 둘려안저 경계는실로 엄중한중 본보강경지국장 김성원(本報江景支局長金星園)씨의 개회사가잇섯고 김광여(金光汝)씨가 등단하야 토론한태도로 뭉둑히돋우리의장을 세어보자는 열렬한웅변을 토한다음에 신인동맹박수해(新人同盟朴秀海)씨가 단에올라 농민으로부터 사회라는 연뎨로우리의생활을 보장할가 이러한일로 우리는 부자연한 모에는 이미결함이 만흔바잇다 사회제도미테서 신음하는 농민이되엇다!『뮈고 볼으짓자발서부터 경관의주의는 수삼차가나리어서 주의!주의를 차집으로 장내의공긔는 매우긴장하얏는바 결국중지를명하고 연사의하단을 재촉함으로 주최측의질문이잇섯스나 중지의리유는 본서로연사를 동행하야 성명하겟다 함으로 할수업시 연사는하단하고 김원회, 김정운(金元會,金貞雲)양씨의웅변이 잇섯스며 심정영으로목 막대에드리는최성에 일시부터서의 호상을 보앗스나 바로정돈하고 이어서 소화영씨의 조리잇는론문으로 정광진씨의 박수갈채는 장내를 울죽울죽하게한후 재봉직공조합오성근(裁縫工組合吳聖根)씨가 단에올라 우리의 자리는 장내를 흐르는박수가장 흐르기는 우리의자리는 조선의 운명에 딸린 것이라는 소리에 경관의『주의』소리가 벗에이르매 경관의 주의도 어찌하는 박수가장 번을거듭하야 결론을 자못간명하게마치고 하단하매 심판박상 환(沈判?朴相煥)씨의 간단한감상담이잇슨후 미증유의 성황으로 오후열시오십오분에 폐회하얏는데 바로뜨르로 연사제씨와 주최자일동의간담회가잇서서 흥금을 헤치고여흥을마친후해산하엿더라

神妙極致한 變裝美人찻기

웅변대회와가튼 시간에 변장미인의 데일대는 행랑어멈의로파가되어 젊고도아름답던 평양의 자태를아조감추고 꽁교한 변장으로 동행구역을 돌게되여 데이대의 옥화는구름가튼 머리를감쪽가티 올어서 일본부인이되어 가지고 얼기얼기한 문의 잇는 일본옷을 맵시잇게 입어서 취런헐아내기가 어렵울게 중뎡통의번화한 구석을 왕래하얏스며 데삼대의추월은녀학생이되어 새을맨들어 삼단가튼머리를 수건으로 질근동인후 남복을사서 입고 사진사의 긔계를 메고나서니 할일업는 하이카라화요일래는 교묘한변장에 가리고말어서 누가쉬이 차저슬것이랴 황금뎡 웅변대회장부터 나돌아다녓스나 필경은찻기가 어려워서시간이되자 정몽는청년들의 미인찻기가 끌복끌복에 번잡함을일우어 한동안은시가가웅축거릴만치성황을일우엇더라

五月中市內『스리』 五署三十七件

검거건수는팔십팔건 ◇被害額千百餘圓

지난오월중경성부내의『소매치기』사건의발생과 그검거수들들으면알에와갓다더라

▲本町署管內發生二十七件 檢擧五十三件

▲鍾路署管內發生七件 檢擧三十四件

▲東大門署管內發生一件 檢擧一件

▲西大門署管內發生二件 檢擧無

▲龍山署管內發生檢擧共無

▲合計發生件數三十七件

▲檢擧八十八件 人員三十二名

被害金額一千百十三圓

◇失戀코테 鐵道自殺◇

지난사일오후팔시십분 부산잔교(釜山棧橋)발 북행 데일렬차가 동십이분경 부산진역(釜山鎭驛)부근에 도착하려할지음에 돌연긔차를보고 나는새와가티뛰어들어 자살한 년령이십이삼세가량의일본청년이잇섯다는데 시톄는참아볼수업시 산산히분쇄되엇고이급보를접한부산경

高價라도日人에게落札 損害는朝鮮人에

이천팔십원에일인에게락찰 일천원에조선인에게또락찰 八面으로當하는差別

지난삼일오후 팔시경 평양신양리경관파출소(新陽里警官派出所)압헤는 사십여명의로동자가 조선사람청부업자(請負業者)두명을붓잡고 공전을 웨아니주느냐?하며 힐난하야 형세가크게 험악하게됨으로 그두사람은경관파출소로 뛰어들어가 순사들의 처지로 진정된일이잇는데 그내용은 평양신양리(新陽里) 김광려(金光呂)가지난사월륙일평양빈뎡(濱町)토목청부업자림청태랑(林淸太郞)에게 평양종로에잇는 종각을 버동문공원으로 이뎐하는 공사를맛기로하고 그청부금액은 일천원

岡山縣下에 旋風,降雹,豪雨

피해총액은아즉조사중이며 電信電話全部不通

지난륙일오후열시오십분경일본 강산현천구군금광뎡(岡山縣淺口郡金光町)을 중심으로큰회호리바람이불며콩알(大豆)만한우박이약삼십분간이나계속하야쏘다지는동시에뢰성소리가나며호우(豪雨)까지석거나리어첩수가옥이 상당히만타는바뎐신(電信)뎐화(電話)는모다 불통이되어 손해가미머할모양이라더라

安息教會 定總開催

오백여명회합 선교사업토의

시외동대문외회긔리(市外東大門外回基里)에본부를둔데칠일안식일교회(第七日安息日教會)에서는 지난사일부터 오는십일까지일주일간 한하야 동교당안에 조선합회(朝鮮合會)의 오회뎡긔총회를 개최하엿는데 전조선각디에 산재한교역자(教役者)와 각교회대표오백여명이 모히어 금후조선에 대한선교사업을비롯하야 교육사업 기타사항을협의중인데 금후부터는 일층더조선의선교사업을위하야 분투하리라더라

船中盜難

원적을경긔도부천군영종면운서리(京畿道富川郡永宗面雲西里)에둔 김춘일(金春一)이라는자는 다년간 어업에종사하던중 금년에도 고기잡기위하야 황해도강령군(黃海道康翎郡)에갓든바 지난이일밤에 배에두엇든 손텰궤에 너헛든돈을일헛다는데 이급보를들은 당디경찰관 주재소에서는 혐의자로 그배선원전부를검거하야 엄중취됴한다고

醉客橫死

길주군동해면동해동(吉州郡東海面東海洞)에사는김순세(金順世)는 지난삼십일일 오후칠시경에 성진군학성면성현동(城津郡鶴城面城峴洞)에서 객사하엿는데 그원인은 그날본집을 향하야 성진서 떠나가던 도중에 술이취하야 권긔 성현동에 가서 왕신희란 중국인음식뎜에들어가서 만두를사서먹으려다가 한개도먹지 못하고 그만거긔서죽엇는데 과음으로인하야 심장마비로 그러케되엇다고(성진)

沒人情한儒林

병인을축출

춘천읍내 향교고직강윤창(春川邑內鄕校庫直姜允昶)의모 박씨(朴氏)는금춘이후병석에서 신음하야오다가 죽음림시를 당하야 향교직원(鄕校直員)들의축출로 지난이십일경에 그이웃속에 거적자리한닙을 깔고 그우에서 객사나다름업는 운명을마치엇는데 이제 그연유를 듯건대 그가병석에서 점점위중에기우러저 가는것을본 향교유림들은 공자님의위패를모신 신성한향교내에서 사망의 루추가잇슬수업스니 죽을때는 나가죽으라는 엄명을나리엇슴으로 원래강윤창은 생활도 곤난한데다가 친척조차업는터에 그러한 명령을 밧고 부득이 이나린터이라 할일업시 륙순이 지난 운명하여가는 로모를안고 그가티 향교엽산비탈에 거적자리우에누여 운명한것이라는데 참혹한 경상을본 그의친지들은 약간의도울모하 장비들보래게하고동시 잔인무쌍한 유림들의태도를분개한다더라

七歲林春植은

전도유망한소년

별항보도와가티 이번전조선자전거경기대회에 유년(幼年)선수로 요감스러히 우승긔를점령한 경성영락뎡(永樂町)이뎡목륙십삼번디림수호(林守浩)씨의장남 칠세아동인 림춘식(林春植)은 으로서 금년봄에 해국부인회경성유치원을 마친후 경성사범부속소학교(師範附屬小學校)입학한후 매일동대문밧게 잇는 권긔학교에를 자전거로통학한다는바 이유년은 본래텬재의품부를바든외에성질이또한용감하야 오륙세때부터 삼륜(三輪)자전거를 타기시작하야작년봄에 경성에서개최된 자전거경주대회에서 삼륜자전거로 일등상을바닷다는데 림춘식은 전도유망한 유남아가 되리라고일반은 칭찬이말할사이가업시 칭찬하엿다더라(인천)

竊盜洪淳福

종로서에피착

시내재동오번디홍순복(齋洞洪淳福)이라는자는 작년여름부터지금까지에 시내각처로 돌아다니며 수백원어치의의복 귀금속(貴金屬)등을 훔쳐다가는 김광수(金光秀) 박창순(朴昌順)등 무려 이십여개의위명(僞名)으로 와섯허먹든 중 지난륙일에 종로서원에게탐지되어 목하 엄중한취됴를 밧는중이라는데 그자는상당한 가뎡의자질로서 성정이 부랑하야 그와가티못된짓을일으킨 것이라는데 여죄가 자못만흘모양이라더라

數字가證明하는差別

평양종로종각을 버동문 공원으로 이뎐하기위하야 평양부텽에서 락찰(落札)되기는 얼마이든가? 당초평양부에서는 조선사람입찰자도 만히 잇섯스나 갑은비싸되 일본사람에게주는것이안전하다 고 림청태랑에게 비싼갑으로 락찰하엿슴으로 원래불평이 만튼터인데 그락찰대금은 이천팔십원이엇다 림청태랑은 이천팔십원에 락찰을하야가지고 그반액도 못되는 일천원에 김광려라는조선사람에게 다시 맛기기로한후 자긔는 가만히안저서 일천팔십원을떼어먹기로하엿든일인데 이에대하야평양회계계(會計係)궁본(宮本)씨는말하되 『그런줄은 몰낫습니다 일천원으로이던공사를한다는것은도 더히될수업는일이외다일천원에 될것을 이천팔십원에락찰시키겟습니까 자세히됴사하야보겟습니다』하며 토목계(土木係)에서는 말하되 『부령에서 하청부(下請負)를마터가지고다시 하청부를시키는 것은공공연히 허락하는것은아닙니다 원측으로 말하면안될일이지요 그리고 새로지은종각이찌그러지엇다는것은 알수업습니다』하더라(평양)

出獄後無職 悲觀自殺

일인청년이

부산부평뎡 삼뎡목 륙십륙번디 대공직향정겸장장남의웅(釜山富平町三丁目六六大工職向井兼藏長男義雄)(二〇)은지난삼일 오후열시경에 쥐잡는약을먹고 자살하엿다는데 원인은절도죄로 부산디방법원에서 징역 이개년의 형을밧고 거년삼월칠일개성소년형무소(開城少年刑務所)를 출옥한후 별로이할만한 직업도업고또다시 무슨범죄를할수도업고 그리된모양이라더라(부산)

◇農村啓發爲해 音樂會開催◇

평양숭실 전문학교(平壤崇實專門學校)음악부(音樂部)에서는 농촌사업을 목뎍하고 그경비를 엇기위하야 오는구일 오후다섯시에 평양부경창리(平壤府景昌里)녀성경학원(女聲經學院)에서 하기대음악회를 개최한다는데 남녀칠십명으로 조직된 련합찬양대와 숭전찬양대를 비롯하야 재경일류악사들이 출연하리라하며 더욱이 정의유치원(貞義幼稚園) 어린이들의 가극도잇서 한이채(異彩)를 더하리라는바 이것이 뎡원음악회로는 평양에서 처음되는 일이라고(평양)

高敞旱魃

전북고창(高敞)군에는 근일개월동안 비가오지 안하야 농작물의 피해는물론이오 면작(棉作)은 면홍이어려우리라는바 일반의 우려가비등하다고(고창)

富豪中毒者

전북남원군내(全北南原郡內)에본적을둔박계수(朴啓洙)는옥구군림피읍내(沃溝郡臨陂邑內)부근을배회하며 모루히네중독자로 발각이되는 동시 방금군산서(群山署)에피착되어 엄중한취됴를밧는다는바 그는 전석군의자제로서 방탕의말로가 그가티 된것이라고(군산)

德川時間宣傳

평남덕천(平南德川)군당국에서는오는 십일을 긔하야 전군내에수만매의 [illegible] 배부하야 [illegible] 시간선뎐을하리라고(덕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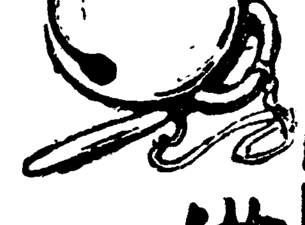
僧房悲曲

(連續撮影興行)

獨鵑 作

羅雲奎 撮影監督

[26]



정매모르는사람들 (一)

『자ㅣ장 자ㅣ장우리애기자장 수선화만발한 맑은물우에 조희배를 띄워노코 어기야 더기야 뚱뚱울갈가 자ㅣ장 자ㅣ장 우리애기자장 뭇별이조으는 푸른한울로 기러기의 등에업혀 훨ㅣ훨 훨ㅣ훨 달마지갈가 자ㅣ장 자ㅣ장 우리애기자장 안개의 모긔장 구름이불에날개돗친 련사안고 씨ㅣ근 쌔ㅣ근 꿈나라가라』

명숙은이러케 서글피 자장노래를불르다가 어린애의 코르르코르르 잠든소리를듯고는 손으로 머리를 슬슬어루만지기도하고 따뜻한 어린애뺨에 자긔의뺨을 문지르기도 하는것이엇다 이런광경을 듯고보든 이암자에 잇는승들은 리유도모르고 눈물을흘리군 하엿다 이암자에서는 명숙을 말하는법 어리로 몰려버렷다 명숙은그러케 자긔가신세를지는 영일에게도 자긔의과거에대한것을 이야기하지안헛다 처음에는승들도 명숙에게 어린애아버지가 어데잇느냐 무엇이엇더냐하고 물어도보앗스나 그대답은 쌍종임으로 지금은그런이야기를 뭇는사람이업섯다 자긔네끼리 모혀안즈면 명숙에게대하야 여러가지로 추측을하엿다

『아마학교에다니다가 아비모를자식을 나흔게야』

『아비들숨기는걸보면 아마일가사람을 부러난게야』

『그런데엇덕하다 장님은되엇슬가』

『암만해두 모를일이야』

『알긴엇더케알어 제가말하기전에야 큰절 해운(海雲)영일시님도 모르시는데』

×

영일은 매일한번식은 이암자에 나려와서 외로운 모자(母子)를 위로하여주고 승들에게 공양법절을 각근히부탁하는것이 이즘의 일과가되엇다 이날도영일은 암자로 나려왓다

『선생님 저편지한장 써주서요』

명숙의 부탁이다

『편지요 어데로 하시게요?』

『저음바 한데요』

『아,오라버니가 게시여요?』

『비 한분게서요』

『어느시골 게십니까?』

『아니요 서대문감옥에 게시어요』

『감옥에요?……』

영일은 더좀무엇을 물으려다가 자긔신상을말치안는명숙을생각하고 말을 중력에끈엇다

『네 쉿틈이지요이제봇과먹을 가져오래서』

영일은 승하나를 불러서큰절에서 자긔방에잇는 필연과조희들 가져오라고 하엿다

『말슴하시지요 편지사연을』

『무워 아모말두업습니다 그저 제가여긔와서 선생님께 신세지구잇다는 안부편지입니다』

『네 봉투에는서대문감옥이라구만쓰면되지요 오라버니 일흠은?』

『아니 서대문감옥이라구 쓰지 마서요 경성부현저동일백일번디라구만쓰구요 한명진(韓明鎭)이라는소리하기실혀요』

편지를다쓰고나서 영일은 궁금증에못이기어 물엇다

『오라버니 나오실긔한이언제입니까?』

『래년이얘요』

『그런데 무슨일로들어가섯서요?』

『남의집에불놓여든죄얘요 선생님은뭇지마서요』

명숙은 이의다우는말을또막아버렷다 아랫목에 누어자든 어린아이가 잠을깨어 키정키정 울엇다 명숙은 더듬더듬끌어안고 젓을 물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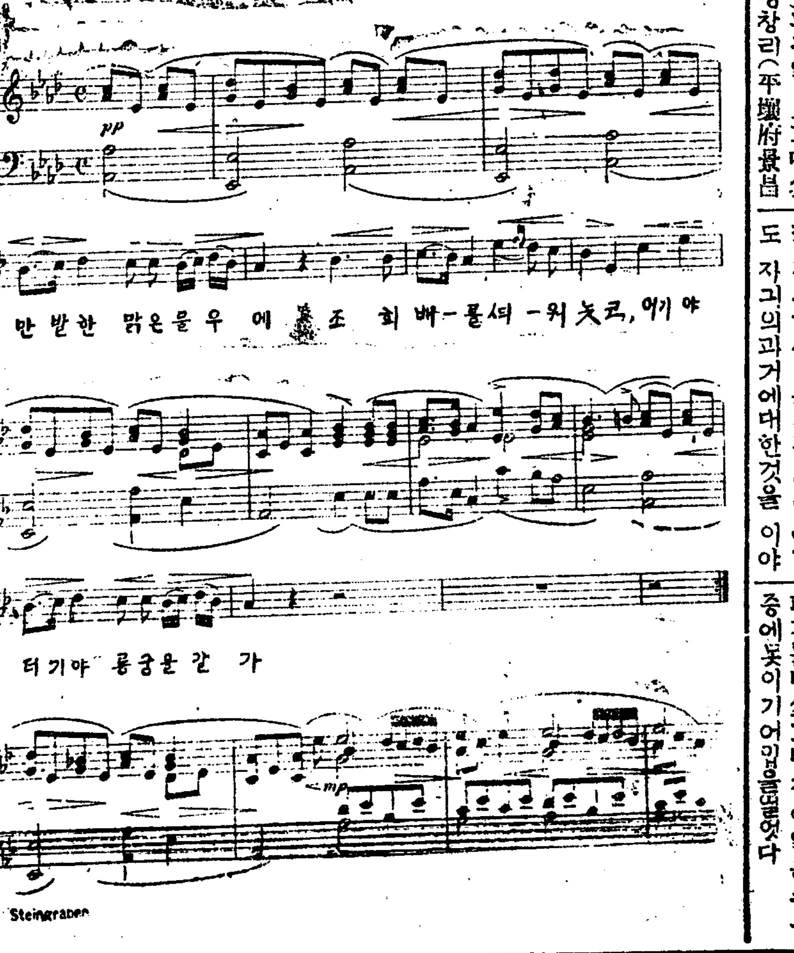
『개는 장님으로세상에나왓다지요 그러니 영영 어머니의얼굴을 모르겟구려』

『그러치요 커도애를나키전에 눈을버렷스니까 우리 모자는영원히 그얼굴들을 못보고죽을터이지요』

영원이 얼굴을 못보고지날 어머니와 아들

명숙의 감은눈에서 눈물이수르르흘럿다

영일은 자긔가 쓸데업는말을 쓰내어 명숙을 울린것을후회하고 그대로 밧그로나가버렷다 한명숙 그의아들 그의올바이수 수격기가튼 인물들의 정례는무엇이냐?



(白菊曲集에서)